

강운태 광주FC 구단주 선수단 오찬 격려

김동섭 · 김은선에 깜짝 생일파티 선물… 분위기 ‘화기애애’

광주FC 구단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K리그 2년차 징크스를 깨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했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패기로 뚫고 끌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모 단장을 비롯해 최만희 감독, 여범규 수석코치와 캡틴 김은선, 프랜차이즈스타 이승기, 박기동, 김동섭 등 선수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구단주 강운태 시장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

는 선수들을 직접 보니 가슴이 뭉클해진다”면서 “최근에 포털사이트에서 광주FC를 검색해 보니 선수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더라.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구단주 강운태 시장은 특히 이날과 전날 생일을 맞은 김은선과 김동섭을 위해 케익과 촛불 뿐 아니라 직접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깜짝파티를 열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에 광주의 캡틴 김은선은 등번호 12번과 함께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선물하며 “광주FC의 12번째 선수로써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 감사하다”고 답례했다.

한편 광주FC는 광주는 1일 벌어진 ‘현대오일뱅크



광주FC 구단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열린 선수단 격려 오찬 자리에서 생일을 맞은 김은선 선수에게 축하 노래와 함께 깜짝 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K리그 2012' 5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1-1로 비기며 창단 최초 5경기 무패행진을 기록했다. 광주는 현재 K리그 16개 구단 가운데 2주 연속 2위에 랭크돼 있다.

2012 K리그 홈경기 일정 안내

Round	경기날짜	시간	상대팀
6	4월08일(일)	15:00	울산
11	5월05일(토)	15:00	대구
13	5월19일(토)	15:00	서울
15	6월14일(목)	19:00	경남
16	6월17일(일)	19:00	인천
17	6월23일(토)	17:00	전남
18	6월27일(수)	20:00	전북
21	7월14일(토)	18:00	성남



●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

광주광역시 KJB 광주은행 해양도시가스 우미건설 Joma

조선대학교병원 청연한방병원 21세기병원 Beautis
맑은피부과·성형외과

밤은안과21병원 명인치과병원 태영21내과 Bullsone VIPS
Steak & Salad Restaurant

지리산산삼 오비맥주 WATER VIS (주)워터비스 Coca-Cola

CAPO mu:m English 뮤엠영어 해모수 휘트니스 클럽 한페이 카드

SEVEN SPRINGS 명인제약 금호패밀리랜드 (주)시티드라이브
대리운전 1600-7777

K리그 최고의 '빅&스몰' 가리자

광주와 울산은 '빅&스몰' 조합으로 올 시즌 공격력에서 쓸쓸한 재미를 보고 있다. 큰 선수가 중심을 잡고 작은 선수들이 좌우로 흔들어 주니 수비수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

광주는 복이(201cm)와 주양파울로(170cm)가 대표적인 예다. 복이는 K리그 최장신으로 어지간한 공중 볼은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다. 발재간도 나쁘지 않아 현재 1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전방에서 복이가 공을 따내면 다음은 주양파울로의 차례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데다 스피드도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직접슈팅이 가능하다.

둘은 5라운드 동안 4골 3도움을 올렸다.

여기에 박기동(191cm), 김동섭(188cm), 슈바(186cm) 등의 장신 공격수와 김은선(182cm), 이승기(177cm), 안성남(172cm)이 '빅&스몰' 조합으로 상대 골문을 노린다.

반면 울산은 김신욱(196cm)과 이근호(177cm)를 내세우고 있다. 김신욱은 수비수 2명을 끌고 다니며 빈 공간을 만들고 발빠른 이근호가 예리하게 파고들어 골문을 노린다. 둘은 현재까지 5골을 합작했다.

과연 K리그 최고의 '빅&스몰' 자리는 누가 차지할 지 주목된다.



광주FC, 봄학기 유소년 축구단 모집

광주FC가 지역의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해 봄학기 유소년 축구단을 모집한다.

광주FC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유소년 축구단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생들이며, 광주지역에서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저학년(1~3학년)의 경우 동기 유발에 중점을 두고 선천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학년은 볼에 대한 집착력 훈련 및 포지션별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할 예정이다.

유소년 축구단 회비(가입비 5만원 별도)는 주중반 5만원, 주말반 6만원이며, 차량 운행과 함께 회원 전원에게 광주FC 유니폼과 스타킹, 사인볼을 제공한다.

회원신청은 광주FC 홈페이지(www.gwangjufc.co)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광주FC 관계자는 "유소년 키즈 아카데미는 볼 컨트롤, 미니게임, 팀워크 등 코디네이션 훈련 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 등을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따뜻해진 날씨만큼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371-7727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온갖 악조건과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와 집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화-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힘든 경제한파 속에서도 정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강국 KOREA를 향해 - 다시 한번 FIGHTING!

JP  광주은행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광주은행

김홍빈

연손가리이 없는 장애인으로 세상 첫 남극 빙순마시프 등극
장애인 사랑 첫 디톡 최고봉 완등 기록
상화인 김홍빈씨가 남극 빙순마시프 정상에 등극하여 광주은행 행기를 들고 기념 촬영한 모습

**POINT
of VIEW**


광주는 지난 5라운드 동안 무패(3승 2무) 행진을 벌이며 현재 승점 11로 수원 삼성(승점 12 · 4승 1패)에 이어 2주 연속 2위를 달리고 있다.

화끈한 득점력으로 경기당 1.6골씩을 몰아친 광주는 K리그 16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팀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까지 터뜨린 8골 중 4골이 후반 40분 이후에 터져 나올 정도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주말 광주극장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된다. 광주는 지난해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1무1패를 기록했다. 첫 만남(원정)에서는 광주가 2:1로 패했다. 전반 35분 김동섭의 선제골로 경기를 압도했지만 후반 페널티킥과 프리킥에서 실점하며 무릎을 끓어야 했다. 광주 홈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철벽수비를 펼치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이번 경기가 끝나면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홈 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승리의 기쁨을 선사해 드리겠다”면서 “김동섭, 김은선이 돌아오고 이승기도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일자	2011년도 상대전적
03 / 20	광주 1 : 2 울산 (패)
10 / 02	광주 0 : 0 울산 (무)

관전 포인트	광주 vs 울산 (광주, 04/08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경기 연속 무패행진 (상주, 포항, 제주, 부산, 강원) ▪ 최근 8골 중 40분 이후 득점 4골 ▪ 복이 K리그 지난 라운드 첫 득점 (공격 포인트 3개) ▪ 광주FC 2주 연속 K리그 2위 (03/24, 04/01) ▪ 광주FC 창단 첫 6경기 연속 무패 기록 도전 	

닮은꼴 두팀의 자존심 대결

올 시즌 광주와 울산은 너무 많이 닮았다. 두 팀은 볼 점유율을 내주고 웅크리며 기회를 엿보다 상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역습형 전술을 사용한다. 공격의 중심에는 ‘빅&스몰’ 조합이 있다.

두 팀의 경기당 유효슈팅은 광주 5.2개, 울산 6.2개로 K리그 상위권이다. 현재까지 각각 8득점씩 올렸다.

닮은꼴은 선수들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이근호와 김은선이다. 둘은 팀의 전투력을 전달한다. 다부진 체격으로 저돌적인 돌파와 몸싸움에 능하다. 특히 후반 동료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특유의 파워풀한 공격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다음은 브라질 출신 주앙파울로와 마라냥. 둘은 팀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다. 후반팀의 공격력이 무뎌지면 어김없이 투입된다. 역할도 같다.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력, 정확한 슈팅 타이밍으로 위협한다.

유종현과 김신욱은 196cm로 같은 키에 동갑내기다. 유종현은 프로 입단 후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김신욱은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역할이 바뀌었다.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두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된다.

2012 시즌 광주FC 공격포인트

이름	포지션	득점	도움
1 주앙파울로	FW	3	1
2 복이	FW	1	2
3 김동섭	FW	1	
4 김은선	MF	1	
5 임선영	MF	1	
6 슈바	FW	1	
7 김수범	DF		1
8 이승기	MF		1

•백화점 · 패션 스토리 · • 이·마트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업 중 여덟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확대 등 일차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 광주신세계



GWANGJU
FOOTBALL CLUB

2012 No.4
GWANGJU F.C
Matchday Program

VIEW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 내 2층 TEL : 062) 373-7733



광주FC,
철퇴 울산 뿌고 돌풍 있다

자존심 대결… K리그 최고 ‘빅 & 스몰’ 가리자



GWANGJU
FOOTBALL CLUB

VS



울산현대

2012.04.08 15:00 광주월드컵경기장

WWW.GWANJUFC.COM TWITTER @GWANGJU_FC FACEBOOK @gwangjufc me2day /gjfc0

을 시즌 무서운 공격력으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가 철퇴 울산을 부수고

돌풍을 이어간다.
광주는 8일 오후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2012
K리그 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면에 계속